

# 중국-인도 국경분쟁

이름: 담득황

학과: 기계공학과

학번: 22047121

# 목차

중국-인도 관계 관련

1962년 전쟁

2017년 분쟁

2020년 분쟁

2022년 충돌

분쟁 지역

결론

# 1. 중국-인도 관계

현재 기준 두 나라는 모두 14억이 넘는 인구 대국[1]으로, 이들 두 나라만으로 지구 전체 인구인 약 78억의 1/3 이상을 구성하며, 동남아시아 일대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둘 다 국민 감정은 매우 부정적이다.



현재 기준 두 나라는 모두 14억이 넘는 인구 대국[1]으로, 이들 두 나라만으로 지구 전체 인구인 약 78억의 1/3 이상을 구성하며, 브릭스로 대표되는 신흥 경제성장국인데다가 군사적으로도 핵보유국이지만, 양국은 티베트 독립 문제 및 국경·영토분쟁(악사이친, 아루나찰프라데시, 카슈미르)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남아시아 일대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둘 다 국민 감정은 매우 부정적이다.

- 고대: 기원전에 인도는 서양보다 먼저 중국의 존재를 알았고 이 때 인도인들은 중국을 당시 인도와 가장 가까웠던 진나라의 이름을 따 산스크리트어로 치나(Cina चीन IPA: [tʃiːne])로 불렀다
- 중세: 오호십육국 시대 들어서 중국에서 불교가 크게 유행하면서 이후 법현, 현장 같은 중국 승려들이 인도를 여행하고 기행문을 남긴 바 있다. 중국에서 불교가 번성하면서 교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당나라 시절에는 장안에 힌두교 사원 및 인도인들이 거주하는 구역이 따로 존재했다.
- 근세: 포르투갈의 아시아 식민지 경영의 중심은 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마카오는 고아에 체류하는 총독의 관할 하에 있었다. 마카오와 고아 사이의 교류는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명나라 조정에서는 마카오를 통해 인도와 간접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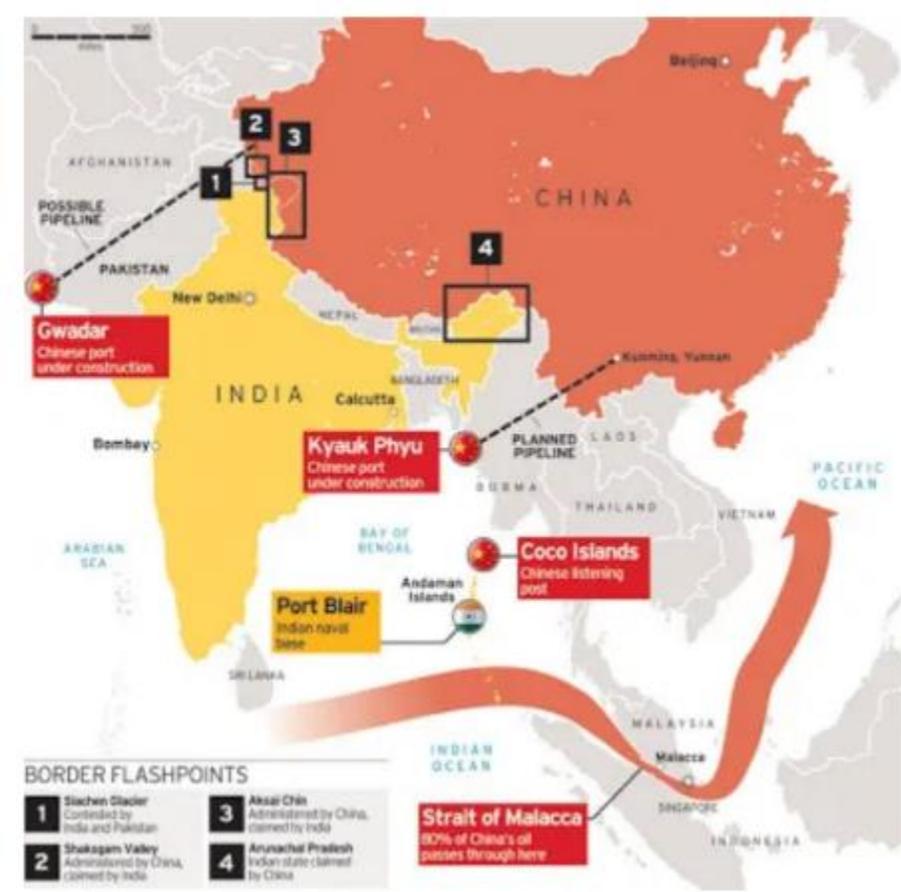
참고로 최근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인도
인구	14.09억명	14.29억 명
중위연령	37.6세	27.1세
GDP	14조 8,607억 달러	2조 5,925억 달러
수출액	2.26조 달러	0.30조 달러
수입액	1.84조 달러	0.46조 달러
문해율	96%	74%
인터넷 사용자 수	7.21억 명	4.62억 명
경제 활동 인구	8.07억 명	5.11억 명
GDP 대비 군사비	1.9%	2.5%
연간 인플레이션을	-1.4%	-1.5%
외환보유고 및 금 보유고	3.00조 달러	0.42조 달러

# 갈등

지금 중국과 인도의 관계와 달리 과거에는 양국의 사이가 의외로 좋았다. 영토 분쟁 지역이 겹치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고 둘 다 교류할 내용들도 많았고 서로 도움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장 중국에 뿌리내린 불교의 원산지가 인도였으며 그 중화사상이 강했던 중국에서 인도를 천축국이라 부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19세기 말, 인구 밀도나 국경 개념이 희박했던 지역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영국 외무부가 임의로 그은 선이 화근이 되어 훗날 인도의 독립 이후 양국의 충돌을 불러온 것이다

1962년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에서 이른바 중인전쟁으로 불리는 국경분쟁이 있었고, 이는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 이는 청나라의 멸망 이후 인도 제국을 다스린 대영제국의 맥마흔 라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현재 중인관계는 1960년대 중인전쟁 이후 최악이다. 이는 2021년 4월 인도의 코로나 대유행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관련 기사 그나마 온건한 성향이었던 장쩌민과 후진타오 집권기 때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주요한 영토분쟁지역은 중국이 소유한 카슈미르 일부 아크사이친, 인도가 소유한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있다. 물론 중국이 소유한 땅이 훨씬 쓸모가 없지만 그래도 영토 분쟁이기에 인도에서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 갈등 사례

- 2017년 중국이 부탄과 접한 도클람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부탄 측이 반발했고 인도 측도 중국을 비판했다.
- 2017년 7월 6일 기사에 따르면 국경 지역에 3,000명의 병력들이 대치 중이라고 한다.
- 2017년 7월 13일 기사에 따르면 인도군은 이 지역에 2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였다.
- 2017년 7월 20일 중국 측에서는 이에 대응해 군수물자와 수술용 혈액을 티베트 자치구에 집결시키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중국군, 인도군과 대규모 무력충돌 임박 징후 결국 양측은 8월 말 대치 상태를 중단하는데 합의했다.
-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중국은 RCEP를 추진하면서 인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시킴을 포함해 4천km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아직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중국은 또 자국 영토에서 도로를 건설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기존 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中-인도, 국경분쟁 성명전...부탄도 중국에 항의



인도군은 중국군과 무력충돌이 발발할 시 화력을 집중해 속전속결을 꾀하는 동시에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사이트는 분석했다.

이번에 양국군 간 대치가 일어난 동랑(洞朗 Doklam)을 포함하는 시킴에도 1개 군단 사령부, 3개 사단 사령부, 14개 여단 총 5만5000명을 집결시켰다.

인도군, 중국과 대치 국경지역에 20만 병력 집결

# 문화교류

인도는 중국에 불교를 전래시켰다. 인도 문화권에서 발원한 불교는 중국에서 꽃을 피웠고, 인도에서는 거의 사그라들었다. 중국에서 외국 서적이 대규모로 번역된 경우는 아편전쟁 이전에는 불교 경전 번역, 원나라 때 이슬람 과학 서적 번역 정도가 있는데, 번역 규모와 기간 자체는 불교 서적 번역 사업이 더 컸다. 이 와중에 인도의 여러 학문과 과학이 중국에 유입된 것은 물론이다. 중국의 장기나 손오공도 인도에서 유래했다. 불교의 발상지는 네팔, 인도이지만 인도에서는 불교가 번성하던 고대 당시에도 농촌에서는 브라만교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강했고, 인도 불교는 중국 불교가 사회 전반에서 유행한 것과 다르게 도회지 상인들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편이었다. 고대 인도의 무역이 서기 3세기 이후 고대 로마의 구매력 약화로 쇠퇴하자 인도 불교는 인도 서부 도시들이 경제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맞물려 서서히 붕괴하였다. 반면 중국에서는 한나라 붕괴 이후 오호십육국에서 한족 피지배층과 북방 유목민 정복자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교리를 가진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적극적으로 번역하였고, 결국 불교는 중국의 사회 각층에 전파되며 중국 문화에 중요한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인도는 중국에 14번이나 자이언트판다 임대를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렇게 되자 인도에서는 코끼리에 판다와 같은 색으로 칠해 판다라고 위장하기도 했다.



## 2. 1962년 인도-중국 전쟁



출동 대기 중인 인도군 병사들



훈련 중인 인도군 포병

날짜	1962년 10월 20일~11월21일	
장소	아크사이친, 아루나찰프라데시 <sup>[1]</sup>	
교전국	 인도	 중국
지휘관	 자와할랄 네루  사르베팔리 라다크리슈난  V. K. 크리슈나 메논  프란 나트 타파  브리지 모한 카울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린바오  장궈화  뤼루이칭  류보청
병력	10,000명 - 12,000명	80,000명
피해규모	전사 1,383명 부상 1,047명 실종 1,696명 포로 3,968명	전사 722명 부상 1,697명
결과	중국의 승리	
영향	아크사이친 내 인도군 초소 제거 아크사이친의 중국 실효 지배	

<https://www.youtube.com/watch?v=5BY8H6C3OVM>

# 전쟁의 양상



이런 와중에 1959년에 티베트에서 중국에게서 독립을 원하는 티베트인의 대규모 봉기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진압군을 티베트로 파견해 대규모 유혈 진압을 벌였고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 14세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종교 탄압과 티베트 문화 말살 정책에 반발하면서 인도로 피신해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달라이 라마의 망명정부 수립으로 두 국가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 갔다. 이로 말미암아 8월에 중국군과 소규모 총격전이 일어났으며, 10월에는 중국군이 인도 경찰 9명을 살해하기에 이른다.

이와중에 1950년대 말, 히말라야 소국을 마찬가지로 병합하던 인도군은 티베트 접경까지 주둔하게 되었고, 원래부터 인구가 희박해서 불명확한 국경에서 잦은 교전이 일어났다.

图-4 重型轰炸机及在中国的改型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전쟁에서 중국 공군은 B-29를 복제한 소련제 Tu-4를 가지고 폭격기, 정찰기, 수송기, 심지어는 조기경보기로 사용했다. 히말라야 지역에서 제대로 수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짝퉁 B-29는 큰 활약을 했고, 덕분에 아마도 이 전쟁은 최후로 B-29가 활약한 전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도의 네루 총리는 비동맹주의를 잠깐 잊고 비밀리에 미국에게 중국을 폭격해 줄 것을 요청한다. 상당히 친소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던 인도가 말이다

# 전쟁의 여파

1965년 미 국방부가 추산한 인도 육군의 피해

- 전사 1,300명: 이 안에는 심지어 여단장인 준장 계급의 장교도 포함되어 있다.
- 실종 1,600명
- 부상 1,000명
- 포로 4,000명: 이보다 적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하는 보고서도 있다.

를 낸 명백한 졸전이었다. 심지어 부대 자체가 해체된 경우가 많아서 매우 위험했다.

반면, 중국 육군은 전사 700명, 부상 1,600명, 포로 0명의 가벼운 피해를 입으며 승리했다.

# 이후 재충돌



1967년 9월 11일부터 9월 14일  
현재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대인(당시에는 시킴  
왕국과 중국의 국경지대) 나투  
라(nathu la)와, 10월 1일 초  
라(cho la)에서도 인도군과  
중국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었다.

# 3. 2017 분쟁



2017년 6월 16일부터 히말라야의 중국, 인도, 부탄의 3국 접경 지대에서 진행되다 8월 28일에 진정된 국경 분쟁이다. 1962년의 중국-인도 국경분쟁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 원인

중국-부탄 간 영토 분쟁이 그 시발점이다. 하지만 중국이 부탄의 뒤를 봐주는 나라가 인도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탄 정부를 무시하고 인도와 맞상대를 하였다. 인도는 처음에는 자신이 개입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부탄은 사실상 논외가 되었고, 중국과 인도의 문제로 번지게 되었다.

이 요청을 받아들인 인도가 즉시 부탄을 대리해 이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곳에 도로를 건설하면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인도의 동북부 지역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 인도 측의 주장이었다.

인도군은 중국이 주장하는 경계를 넘어와 국경지대의 중국군 초소 두곳을 파괴했으며, 아예 중국 측이 주장하는 경계 안에 50여명의 병력이 들어와 주둔해 있다.



인도는 인도대로, 중국의 도로건설을 아루나찰프라데시 문제와 연관지어 보고 있다. 중국과 인도 사이의 분쟁에 휩싸인 국경 길이가 4057km나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도클람 문제를 바라본다.

부탄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됐다. 중국과 인도는 1962년 아루나찰프라데시를 놓고 전쟁을 벌인 적 있다. 2014년에도 중국군이 시킴에 진입해 인도와 대치했다.



중-부탄 접경지역 도로 건설에  
인도가 반대  
인 "우리 핵심 전략지역 위협"  
중 "인도가 국제법 위반"

중국-인도 국경분쟁 한달 넘게 대치

# 전개

한편 히말라야와는 별개로, 서쪽의 카슈미르 지방의 아크사이친 지역과 동쪽의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의 맥마흔 라인 일대에서도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중국과 인도의 국경선 전역에 걸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양국의 정부 대변인들도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 중국 측은 인도군에게 국경 밖으로 즉각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인도 측은 도로 건설을 중지하기 전까지는 철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인도 측에 9월 초까지 물러나라고 다시 한번 최후통첩을 했다. 현지에서는 가을부터 혹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현재도 양국군이 입은 군복은 동복이다) 만약 중국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9월 초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군, 인도군 월경에 경고

이들 매체는 중국군이 조기경보기 쿵징(空警)-500과 젠(殲)-10 전투기 수십 대를 티베트 고원 공군기지에 긴급 배치했다며 관련 사진까지 올렸다.

사진에 등장하는 중국 전투기는 젠-10A형으로 인도 공군이 보유한 미라지 2000과 수호이-30보다 성능이 탁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쿵징-500의 지원을 받으면 전체 공중 전력상 인도를 압도 가능하다고 전문가가 지적했다.

## 中, '국경 대치' 인도에 최후통첩

### 긴장 고조되는 중국·인도 국경 분쟁 지역



지난 6월부터 두 달 가까이 이어져온 중국·인도 국경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중국이 인도군을 추방하는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2주 안에 인도군 추방을 위한 소규모 군사작전이 단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여파

인도에서는 중국제 물건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 측은 어차피 인도 내 저가 전자제품은 대다수가 중국상표이며 그런 중국 제품이 꼭 잡은 상태라서 불매운동 따위 걱정없다.

더불어 인도 측은 2017년 8월 9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93종의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국산 제품은 주로 석유화학, 화공, 철강, 비철금속, 섬유, 실, 기계류, 고무, 플라스틱, 전자제품이며 중국 수입품 40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질세라 보복으로 중국 기업들이 인도인 직원들을 해고 하고 있다는 트위터발 소식도 있었다.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ree tweets from August 15, 2017, discussing the firing of Indian nationals by Huawei in Iran. The tweets are arranged in a grid: two in the top row and one larger one in the bottom row.

**Top Left Tweet:** User: Vikrant Singh (@envikrant Singh). Text: "@PMOIndia @SushmaSwaraj @MEAIndia all Indian expats working in Huawei Telecomm Iran told verbally to leave Huawei Iran in 1 day 1/2". Time: 9:36 PM - 15 Aug 2017. Engagement: 17 Retweets, 4 Likes.

**Top Right Tweet:** User: md perwez iqbal (@perwez1000). Text: "@SushmaSwaraj @PMOIndia My all Indian friends are only sacked by Huawei iran in last 1hr.Asked to leave Iran by tomorrow #Doklam". Time: 7:47 PM - 15 Aug 2017. Engagement: 18 Retweets, 4 Likes.

**Bottom Tweet:** User: I'm Rohit (@rohit0710). Text: "@PMOIndia @SushmaSwaraj Huawei Iran has fired all Indian Nationals today. To be informed, this is not business related decision.#jio#Airtel". Time: 10:38 PM - 15 Aug 2017. Engagement: 18 Retweets, 12 Likes.

인도 인터넷에서는 중국 브랜드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Baba Ramdev(요가 지도자로 유명함)같은 유명인사도 공개적으로 중국 제품의 불매운동을 촉구하고 있다.

# 해결

위기가 고조되던 8월 22일 인도 측은 목소리를 누그러뜨렸고 #, 결과적으로 군사적 대치 중에서 막후에서는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다. 인도 측이 먼저 발 뺀 이유는 의회에 3조원의 전비를 요청했지만, 탄약 비축량도 10일치에 불과하다.

결국 8월 28일 양측 외교부는 모두 상대방 군대가 철수했다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 진정되었다.

중국군이 티베트에서 인도와의 무력충돌에 대비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중앙통신과 명보 등이 보도했다.



中-인도, 국경분쟁 끝...“동랑서 병력 철수 합의”

# 국내의 반응

이번 분쟁을 통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되기엔 확실히 여건이 좋지 않음이 입증되었는데, 한 덩치하는 인도, 한 성깔하는 베트남, 숙명의 라이벌 일본까지 모두 패권국인 미국과 원교근공을 맺고 있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포위된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국이 외교상으로 겪는 한계다. 다시 말해 동맹 내지는 혈맹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없다.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정치적 밀월관계를 꾀하는 것뿐이지, 엄연하게 우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

# 4. 2020년 분쟁

2020년 중국-인도 국경분쟁 2020-2021 China-India skirmishes 2020 चीन-भारत में झड़पें हुई 2020年中印边境冲突	
2020년 5월 5일 ~	
장소	
카슈미르 라다크 갈완계곡의 중-인 국경	
교전국	
 중국	 인도
병력	
250,000명	60,000명
피해규모	
전사자 4명 <sup>[3]</sup> 또는 20~30명 <sup>[4]</sup> 또는 45명 <sup>[5]</sup>	전사자 20명 부상자 4명



2020년 인도군과 중국군이 카슈미르 라다크의 갈완계곡에서 충돌한 사건이다.

58년간 이어져온 양국의 국경 분쟁 중 1975년 이후 사망자가 발생한 첫 유혈사태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도 전역에서는 반중 시위와 중국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충돌 이전

2019년 2월 9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1박2일간의 인도 북동부 순방 일정을 소화하던 중 예고없이 아루나찰프라데시에 소재한 파룸파레지구(Parum Pare District) 홀롱기(Hollongi)를 방문하여 도니이폴로 공항(Donyi Polo Airport) 건설을 위한 초석을 쌓았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월 10일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주를 (인도의 땅으로) 인정할 적이 없다"며 "인도 지도자들이 중·인도 국경 동쪽 지역에 방문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라고 밝혔다.

사건의 전초전은 2020년 5월 5일 라다크의 방공 호에서 있었다.

2020년 6월 6일에는 중·인 국경부근에서 양군이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얼굴을 맞대며 대치하다가, 인도군 군인들이 중국군 장갑차에 돌을 던지거나 하며 서로 몸싸움이 시작되며 양측에서 부상자가 나왔지만, 이때까진 사망자는 없었다.

# 6월

- 6월 24일, 중국 국방부는 중국·인도 간 국경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양국 군대의 유혈충돌 책임을 인도 측에 돌렸다.
- 6월 25일,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은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를 구매했다.
- 6월 29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티베트 자치구의 히말라야 고원지대에 'PCL-181' 155mm 신형 곡사포를 배치했다.
- 6월 29일, 시짱(티베트) 군구 사령관 왕하이장이 인도와의 접경지역 초소를 방문했다.# 이 사령관은 이듬해 3월 신장군구 사령관을 거쳐 8월에 서부전구 사령관으로 영전한다.



인도군이 지난 18일 히말라야 라다크로 향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인도의 교전 규칙 개정으로 두 나라 사이에 확장(擴戰)을 방지하던 완충 장치가 사라지게 되면서 국경지대 충돌이 더욱 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7월~12월

- 국경 최전방 부대를 철수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인도는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의견이 갈렸다.
- 인도가 러시아산 전투기 33대 구매 등 6조원대의 무기 예산안을 확정했다.
- 인도 정부는 국경지역에 인도군 35,000명을 증강 배치했다.
- 인도 정부는 다르차와 라다크를 잇는 도로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 중국이 전투준비태세를 23년 만에 2단계로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1일 판공초 호수 부근 국경 대치 상황을 정리하자면 위 그림과 같다(인도측 자료).

9월 15일, 중국군이 국경 지대에 고속 통신용 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통신망 강화에 나섰다.

10월 21일 인도군이 국경 지대 인근에서 체포한 중국군 1명을 조사 후 송환했다.

# 2021년

- 1월 4일, 중국이 인도와 국경 분쟁 중인 가운데 티베트 군구 소속 병사들에게 포로로 잡히기 전 자폭할 수 있는 자기파괴장치를 달았다고 빈과일보가 보도했다.
- 양측 군인들 간에 소규모 충돌이 벌어진 것이 알려졌다.
- 2월 10일. 인도와 중국이 판공(Pangong) 호숫가에 배치한 최전방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 22일에 양측 철수 완료했다.
- 2월 12일.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인도군 사망자가 20명, 중국군 사망자는 45명이라고 보도했다.
- 라다크 동쪽 고그라(가가라) 고지의 인도군과 중국군 철군이 이틀에 걸쳐 완료됐다.



중국, 인도와 분쟁 티베트군구 병사에 자폭장치 달아

협곡서 벌어진 두 인구대국의 황당한 중세 전투

# 2022년

2022년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4회  
동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4년  
간 이어지는 동하계 한중일 3연속  
올림픽의 마지막이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개회 선언

## 인도, 산악부대용 경전차 긴급 도입 승인



인도군이 인도 정부로부터 중국과 인접한 히말라야 국경 등 산악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경전차 긴급 조달을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은 지난 주 긴급 조달 승인을 받은 다른 여러 사업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한다.

## 5. 2022년 충돌

2023년 8월 29일 : 하지만 이런 분쟁은 중국 자연자원부가 제 20회 전국 측량 홍보일(全国测绘法宣传日)을 맞이하여 제작한 2023년 판 표준지도(标准地图)를 공개하면서 다시 재점화 되었는데 분쟁지역인 히말라야 남쪽 아루나찰프라데시 주(州)와 카슈미르 지역 아크사이친 고원이 모두 중국 영토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시작하기 전 2023년 9월 20일 중국에 입국하려고 했던 인도 우수팀 선수 11명중 3명(니에만 왕수, 오닐루 테가, 메퐁 람구)이 중국 입국을 하지 못했는데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맞닿고 영토 분쟁중인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 출신으로[7] 이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 2022년 중국-인도 국경분쟁

2022 China-India skirmishes

2022 चीन-भारत में झड़पें हुईं

2022年中印边境冲突

2022년 12월 9일 ~

## 장소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인근 타왕 지역

## 교전국



중국



인도

## 병력

-명

-명

## 피해

-

-

2022년 12월 9일 중국군과 인도군이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타왕(Tawang)에서 충돌하였다.



▲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디지털 성화

1990 베이징 아시안 게임과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이어 중국에서 개최된 3번째 하계 아시안 게임이다.

2023년 9월 23일에 개최된 제19회 하계 아시안 게임이다.

최종적으로 중국 내부의 코로나19 확산 및 군중 통제 등으로 말미암아 2023년 9월 23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2년 하계 아시안 게임 유치 투표 과정			
국가	도시	1차 투표	결과
 중국	항저우	무투표 당선	유치 선정

이전 18회 대회를 개최하려 했던 베트남의 개최권 반납 과정에서 보듯, 2010년대 말을 기점으로 대규모 국제 대회의 유치를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팽배했다.

2014 브라질 월드컵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연이어 개최한 브라질이 정치, 경제적으로 파국에 치달는 것을 목격한 국가들은 웬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이상 국제 스포츠행사 유치를 기피하게 된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에 소속된 45개국<sup>가나다순</sup>이 참가하며, 안의 숫자는 선수 규모다.

참가국 명단 (총 45개국) <sup>가나다순</sup>				
 네팔(253)	 대만(523) <sup>[4]</sup>	 대한민국(870)	 동티모르(23)	 라오스(94)
 레바논(28)	 마카오(186)	 말레이시아(288)	 몰디브(75)	 몽골(410)
 미얀마(113)	 바레인(144)	 방글라데시(181)	 베트남(331)	 부탄(26)
 북한(185)	 브루나이(11)	 사우디아라비아(190)	 싱가포르(429)	 스리랑카(84)
 시리아(30)	 아랍에미리트(132)	 아프가니스탄(105) <sup>[5]</sup>	 예멘(18)	 오만(44)
 요르단(78)	 우즈베키스탄(392)	 이란(287)	 이라크(31)	 인도(657)
 인도네시아(415)	 일본(770)	 중국(개최국)(886)	 카자흐스탄(527)	 카타르(221)
 캄보디아(133)	 쿠웨이트(135)	 키르기스스탄(160)	 타지키스탄(104)	 태국(932)
 투르크메니스탄(57)	 파키스탄(190)	 팔레스타인(70)	 필리핀(393)	 홍콩(685)
 OCA(12)				

## 6. 분쟁지역

아크사이친, 아루나찰프라데시/남티베트(南藏), 시킴주 북부 산악 지역 등이 분쟁 대상이나, 예외로 2017년 국경 분쟁은 부탄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도클람이 분쟁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부탄 혼자서 중국을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보니 결국 부탄 측에서 인도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인도가 개입하면서 중국-인도 간의 국경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구(District)가 위치하고 있다. 이 주 동북부의 아디(Adi)어를 사용하는 디방 밸리(Dibang Valley) 구의 인구는 7,948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다. 한편 이 주 동남부 일부 지역인 창랑, 티랍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 7. 결론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분쟁은 오랜 역사와 복잡한 지리적, 정치적 요소가 얽힌 문제로,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이다. 이 분쟁의 주요 원인과 현재 상황, 그리고 가능성 있는 결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역사적 배경:

-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오랜 기간 동안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 지역의 국경 설정은 식민지 시절부터 복잡했다.
- 1962년 중국-인도 전쟁은 주요 분쟁의 기점이었으며, 이후로도 수차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 주요 분쟁 지역:

- 아크사이친(Aksai Chin):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인도는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지역.
-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인도가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이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지역.

### 지속적인 협상:

- 중국과 인도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외교적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국경 지역의 군사 배치 축소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적 중재:

- 제 3국이나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중립적인 시각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 하지만 양국 모두 주권 문제를 내세워 외부 중재를 꺼릴 가능성도 있다.

### 경제적 협력:

-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높여 분쟁의 여파를 줄이고, 평화로운 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 양국 간 무역과 투자 증진은 분쟁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인도 국경분쟁은 복잡한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요소가 얽힌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양국은 외교적 노력과 협상을 통해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신뢰 구축과 경제적 협력을 통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국제적인 중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인 해결책은 양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에 달려 있다.

감사합니다